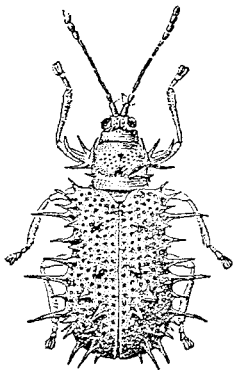


(경) (계) (해) (충)



[학명] *Dicladispa armigera* (oliver)

[영명] Rice hispid (paddy hispa)

[분류] Coleoptera目, Hispididae科

국립식물검역소 검역과 유 기 열

벼를 주 기주식물로 하는

벼가시일벌레

중공·버마등 동남아시아역에 만연, 피해커

<개설>

이 해충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서 인도, 버마, 파키스탄등에서 벼의 가장 무서운 해충의 하나인데 특히 담수(湛水)된 벼의 잎을 심하게 가해하여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1925년 7월 중공 체강(Chekang)의 쉐쵸(Wenchow)지방에서는 이 해충으로 벼의 40~50%가 피해를 입었고 버마의 남부지역은 해마다 7~10월, 파키스탄의 동부지역은 4~8월사이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또한 태국에서는 중요 해충으로 지정하

여 방제에 많은 경비를 들이고 있다.

중공, 재배벼의 40~50% 상습적으로 큰 피해 입어

이 해충은 미농부성에서 발행한 "Cooperative Economic Insects Report 1958 Vol.8 : 9-10"의 미국에 발생하지 않은 곤충에 대한 해설집에는 일벌레과(Chrysomelidae)로 분류하였으나 영연방곤충연구소(CIE)에서 1966년 12월에 발행한 해충분포도 No. 228에

서는 가시잎벌레과(Hispidae, 棘金花虫科, トゲハムシ科)로 분류하고 있어 최근의 자료에 근거 가시잎벌레과로 결정하였으며 시초(翅鞘)와 가슴에 가시(spine)가 많이 나있고 주로 잎을 가해하기 때문에 벼가시잎벌레로 이름지었다.

벼잎벌레와 비슷해 쏘주의

아직은 우리나라에 발생된 기록이나 발견된 사실도 없다. 그러나 식물과 식물성 산물의 교역량이 많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 해충과 비슷한 벼잎벌레(Lema hororata Baly)가 우리나라에 발생하여 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내침입 위험성이 높다. 또한 기주식물인 벼가 주작물(主作物)이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 정착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동남아시아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물과 식물성 산물에 대하여 철저한 검역이 요망된다.

<분포>

버마, 스리랑카, 중공,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네팔,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하이난제도(諸島: 중공령)

〔註〕 1958년의 미농무성 자료에 의하면 자유중국을 분포지역으로 넣었으나 그후 Gressitt와 Kimoto씨가 조사한 결과 *Dicladispa boutani* (weise)로 밝혀졌고 일부에서는 *Hispa similis* Uhm-ann로 적용하고 있어 분포지역에 넣지 않았다.

<기주식물>

벼(제 1의 중요 기주식물임), 순무, 마(麻), 사탕수수, 야생벼, 야생잡초(상기의 기주식물이 없을 경우)

<형태>

○성충: 몸 길이는 5mm가량의 작은 벌레로 시초(翅鞘)는 금속성의 검푸른 색을 띠며 양쪽 가장자리는 편평하며 사면부(斜面部)는 둥그스름하다. 시초전면(翅鞘全面)에는 많은 가시(spine)가 나있으며 큰 것은 2~3mm가량되는 것도 있다.

시초전면에 수많은 가시있어

앞가슴 배판(背板)의 양쪽 가장자리의 가운데에는 4개로 갈라진 큰 가시가 있으며 이 가시의 뒤쪽에 하나의 작은 가시가 있지만 때로는 없는 경우도 있다. 측각은

근봉모양으로 머리 앞쪽에 같이 붙어 있으며 병절(柄節)은 크고 기부아래쪽에 작은 가시가 있으나 선단부에는 가시가 없다.

○유충 : 흰색이나 노랑색으로 검은 반점이 있으며 편평하다. 앞쪽 3마디는 복부(腹部)보다 넓다.

○알 : 2mm가량의 긴 타원형이다.

<생태>

잎의 앞면 표피조직에 산란관을 삽입하여 날개로 알을 낳지만 거의 모두 밖으로 노출되어 쉽게 볼 수 있다. 알은 5~7일만에 부화하여 유충이 되고 유충은 잎에 독특한 얼룩모양을 만들면서 상하표피조직사이에 굴을 뚫어 놓는다. 유충은 흔히 굴 밖으로 나와 잎의 다른 부분이나 새 잎으로 옮겨 간다. 15~17일만에 잎에서 유충은 번데기로 된다.

발버 보다 담수벼 좋아해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해충은 습도에 민감하여 물이 없는 발버 보다 담수된 논이 벼를 크게 가해한다. 그리고 잎이 연한 벼품종은 잎이 딱딱한 품종에 비하여 피해를 받기 쉬우며 성충은 유휴지나

잡초밭에서 월동한다.

<피해>

못자리시기와 이앙직후에 피해가 가장 크며 유충이 굴을 뚫고 파들어 가면 잎에 큰 노란반점의 피해증상을 나타낸다. 피해가 심하면 논 전체가 누렇게 보이며 벼는 마침내 고사한다.

이른봄 유휴지에서 대량비래 잎 갈아 먹으며 막대한 피해

성충은 잎을 갈아 먹으며 이른 봄에는 유휴지나 주변의 잡초밭으로부터 월동한 성충이 대량으로 날라 들어와 막대한 피해를 내기도 한다.

기주식물 유입에 주의해야

<검역상 주의>

동남아시아등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해서는 이 해충의 기주식물의 유무를 조사하고, 기주식물이나 기타 물품의 외부에 성충이 부착되었는가를 주의깊게 조사한다. 또한 피해식물이나 혐의가 있는 식물의 잎은 끊거나 쪼개어서 잠입 유충이나 알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사한다.